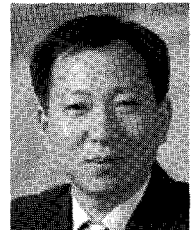


특 집 2

자연, 인간, 정보가 함께하는 디지털도서관 디브리리

이 신 호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사서사무관
lsh@mcsst.go.kr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 디브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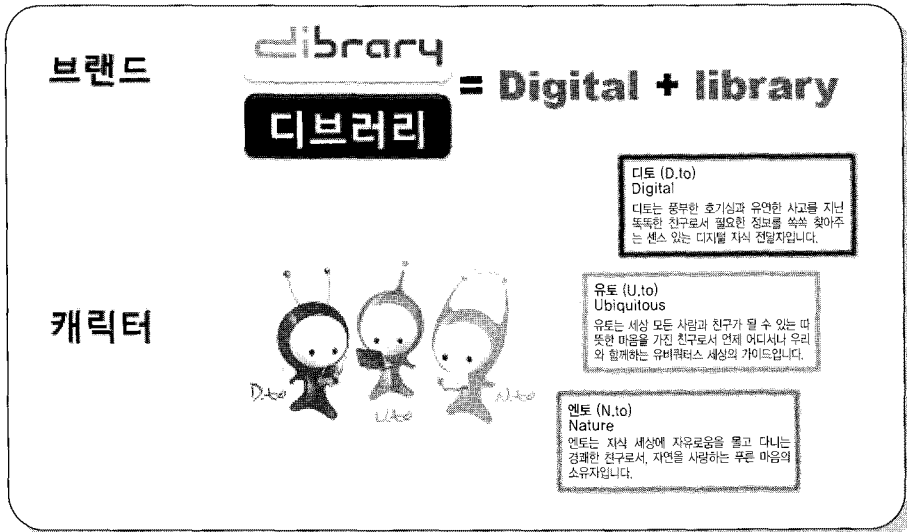
2009년 5월 25일(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가 증가하고, 정보기기의 발달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000년 처음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2001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건립이 확정되었으며, 2002년 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도서관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의 방향이 정립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이 진행되었다. 2005년 12월 착공하여 약 3년간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2008년 12월 29일, 준공식을 가졌다.

그 후 5개월, 디지털도서관은 서비스 및 시스템의 성능 등을 계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왔으며, 이제 2009년 5월 25일(월), 전국민 나아가 전세계인에게 IT강국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그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의 개관을 준비하며,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이름이 될 브랜드와 디지털도서관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했다.

브랜드는 Digital과 Library의 합성어인 “디브리리(dibrary)”로 하였다. 디브리리의 브랜드 마크는 디브리리의 이미지를 인지시키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블록 모티브를 이미지로 표현하여 다양하게 제공되는 정보 이상의 맞춤 지식을 통한 완성과 통합의 개념을 담은 새로운 지식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브랜드 '디브리리'와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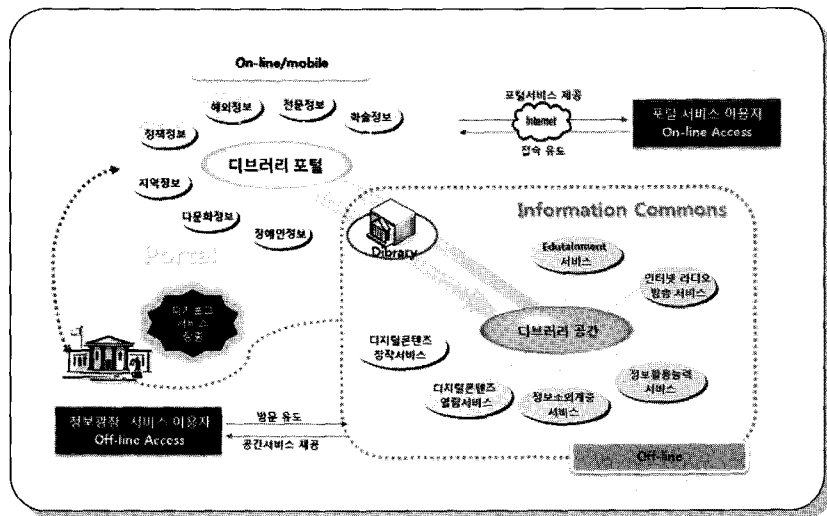
또한 디브리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디브리리의 캐릭터를 개발하였다. 디브리리의 캐릭터에는 디브리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자연, 인간, 정보가 함께하는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푸른빛 디토(D.to)는 정보를, 밝고 따뜻한 느낌의 주홍빛 유토(U.to)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화합과 교감을, 친근하고 경쾌한 연두빛 엔토(N.to)는 자연을 표현하였다.

- 디토(D.to) : 미래지향적인 푸른빛 디토는 필요한 정보를 쫓쫓 찾아주는 디지털 지식 전달자를 상징한다.
- 유토(U.to) : 따뜻한 느낌의 주홍빛 유토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유비쿼터스 세상의 가이드를 상징한다.
- 엔토(N.to) : 친근하고 경쾌한 연두빛 엔토는 자연을 사랑하는 푸른 마음의 소유자로 지식 세상의 자유로움을 상징한다.

디브리리의 브랜드 마크와 캐릭터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브랜드 파워를 증대하여 "디브리리"가 세계적인 디지털도서관의 고유명사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디브리리의 키워드 : 소통, 참여, 통합, 개방, 체험, 즐거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디브리리”는 전세계 고품질 디지털정보와 소통하는 디브리리 포털과 첨단 정보시설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평등하게 디지털자료를 열람 및 교육, 창작, 교류, 휴식, 체험할 수 있는 디브리리 정보광장으로 구성된다.



[그림 2] 디브리리 서비스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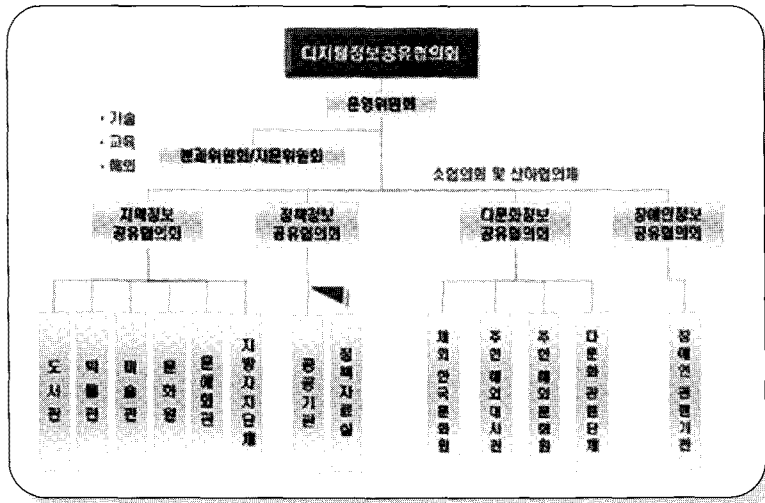
디브리리 포털 : 세계 지식정보의 허브

디브리리는 모든 계층의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디지털지식정보에 대한 통합 접근점을 제공하는 물론, 국내외 공공 및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식정보자원의 연계와 공유를 추진하는 디지털정보공유협력망의 구성과 운영, 정책, 지역, 다문화, 장애인 등 이용자에게 특성화된 포털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 참여와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Library 2.0 서비스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1. 디지털정보공유협력망의 구성과 운영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디지털정보가 생산, 활용, 배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정보공유 협력망은 디지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디지털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수준 높은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최적의 디지털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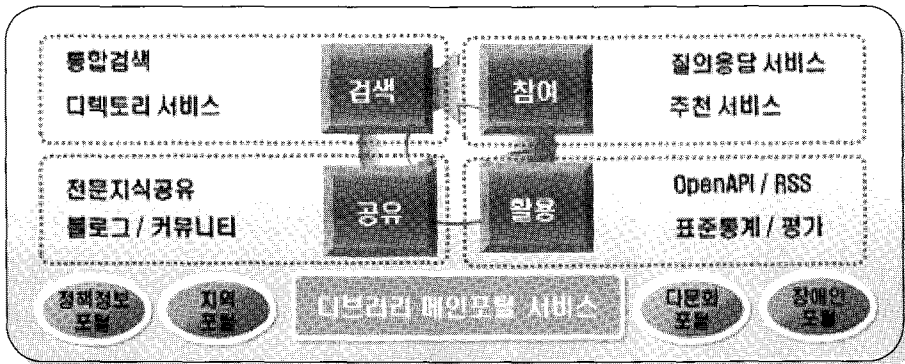
디지털정보공유협력망은 “디지털정보공유협의회”가 총괄하고 “지역정보공유협의회”, “정책정보공유협의회”, “다문화정보공유협의회”, “장애인정보공유협의회” 등 특성화된 4개 소협의회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3] 디지털정보공유협력망의 구성·운영체계

2. 이용자에게 특성화된 포털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

디브리리 포털은 메인포털서비스와 ‘정책정보포털’, ‘지역포털’, ‘다문화포털’, ‘장애인포털’ 등 특성화된 포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4] 디브리리 포털 개념도

- 정책정보포털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정책자료에 대한 통합검색을 제공한다. 또한 수집콘텐츠 및 정책전문 사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에서 자체 생산한 정보를 서비스한다.
- 지역포털은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분류 및 지역 학술연구/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학술적, 정보적 가치가 있는 지역정보를 발굴, 수집, 보존, 제공한다.
- 다문화포털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소통을 위한 지식정보 발굴 및 통합검색을 제공한다. 또한 이주민의 정보요구 및 생활적응을 지원하는 다문화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 장애인포털은 기관별로 분산된 장애인 관련 콘텐츠를 통합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소외계층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브리리 포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정보, 원문정보, 웹상용 DB, 책정보 등 학술정보 900만건을 비롯하여, 문화콘텐츠, 과학기술정보, 국가기록물, 국가지식자원, 한국표준정보, 특허정보, 오아시스(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등 전문(專文)정보 5,000만건, 해외학술지, 해외학술회의, 해외대학, 해외 공공기관 오픈정보 등 해외정보 5,000만건 등 총 1억건의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며, 향후 디브리리 정보제공 정책과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디브리리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양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3. 참여,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Library 2.0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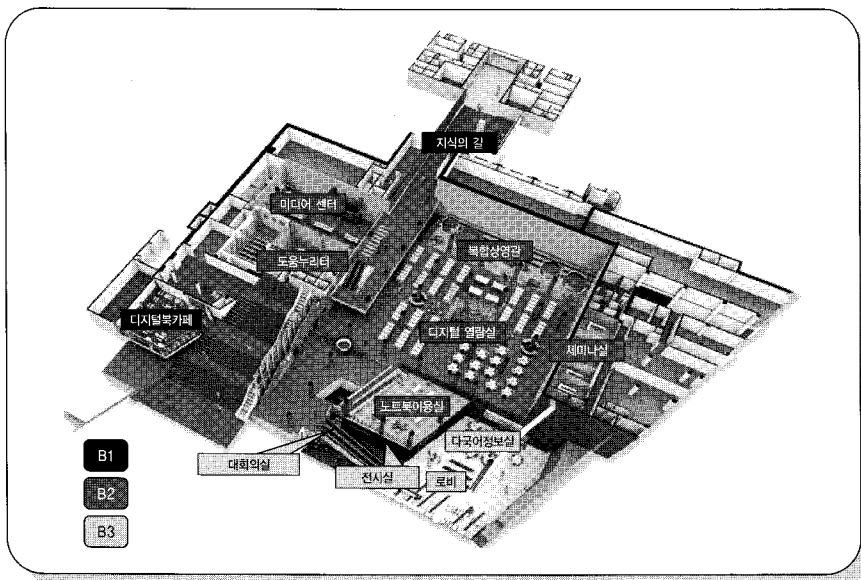
디브리리 포털의 가장 큰 특징은 Library 2.0을 기반으로 한 쌍방향 정보 교류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참여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브리리 포털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지식공유, 블로그, 카페 등이 있다. 또한 협력형 온라인지식정보서비스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통해 이용자는 전문사서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디브리리 정보광장 : 원스톱 정보서비스의 디지털 복합문화공간

디브리리 정보광장은 정보와 인간이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지식정보 서비스가 가능하며, 모든 이용자가 평등하게 디지털 자료를 열람, 교육, 창작, 교류, 휴식, 체험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디브리리 정보광장의 특징은 첫째, 모든 이용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란 점이다. 도서관 이용에 특히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과,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둘째, 정보광장 내·외부로 자연과 함께하는 디지털공간을 구성했다. 디지털열람실 중앙의 그린스팟, 지하 5층까지 자연채광이 가능한 썬큰가든,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정원, 정보광장 전체를 덮고 있는 잔디광장 등이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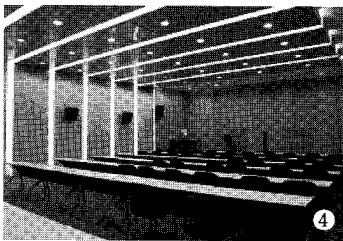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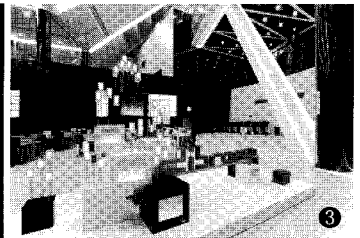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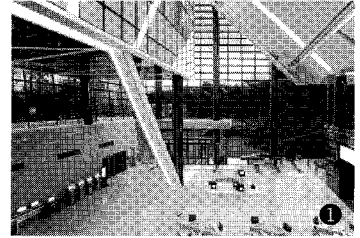
[그림 5] 디브리리 정보광장의 공간구성

□ B3(지하 3층)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디브리리 정보광장 이용자가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관문이다. 상징조형물, 첨단 영상매체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시실, 대회의실 등의 시설이 있다.

- 로비 : 디브리리 정보광장의 주출입구로 안내데스크, 이용자 인증공간, 물품보관실, 빠른 검색대 및 지식의 뜰, 광예술관, 디지털전광판, 디지털신문대 등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되는 공간이다.
- 다국어정보실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공간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지원 PC와 위성방송을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 전시실 :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획 및 상설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 대회의실(70석) :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을 위한 공간이며, 전 좌석은 강사와 참석자간 자료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별 노트북이 제공된다.



- ① 로비
- ② 전시실
- ③ 지식의 뜰
- ④ 대회의실

그림 6. 디브러리 지하3층의 공간별 사진

□B2(지하2층)

디브러리 정보광장에서 이용자 열람서비스 집중 공간이다. 이용자의 연구, 교육, 학습을 위한 첨단 시설이 집중된 통합센터 공간이다.

- 노트북이용실(87석) : 유무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개인노트북을 이용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 디지털열람실(252석) : 디지털정보를 검색, 열람, 문서작성과 대형 및 다중 모니터를 이용한 전문작업, 인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지털 서비스존과 멀티태스킹존이 있다.
- 세미나실(8개실) : 그룹별 스터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PC 및 영상장비,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회의한 내용을 저장, 조회, 배포가 가능하다.
- 복합상영관(4개관) : 그룹별로 디브러리가 보유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 미디어센터(60석) : 디지털콘텐츠를 편집, 이용, 전시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디지털편집

실과 미디어자료실이 있다.

- 소회의실(35석) : 세미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 35석에 모두 PC가 설치되어 있다.
- 도움누리터(22석) : 몸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스크린확대기, 한손키보드, 점자프린터 등 각종 보조공학 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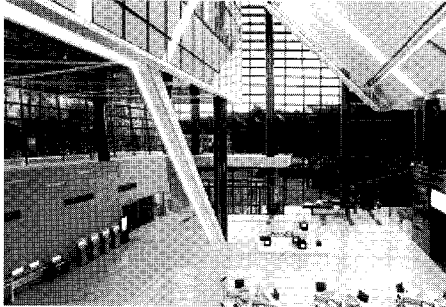


그림 7. 디브러리 지하2층의 공간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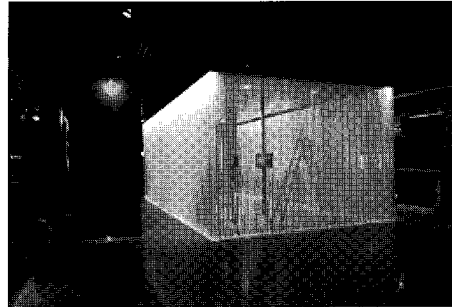
□B1(지하 1층)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의 내부연결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 지식의 길 : 정보광장과 본관 지하 1층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여 콘텐츠를 재생하는 솔루션이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 디지털북카페 : 간단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게임 등의 간단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U-터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지식의 길



디지털북카페

그림 8. 디브리리 지하1층의 공간별 사진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장, 디브리리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2000년 디지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당시에는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정보자원의 증가와 정보기기 발달로 인한 효과적인 디지털서비스가 그 목적이었다.

이제 개관하는 디브리리는 디지털정보자원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뛰어 넘어, 디브리리 포털을 통해 디지털정보의 수집, 정리, 재생산, 보급이 가능한 국가디지털정보종합센터로서 디지털정보 문화의 향유와 디지털정보의 보존과 전송의 핵심센터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정보광장을 통해 첨단 매체, 솔루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의 표준적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온·오프라인 융합서비스를 구현한 디지털도서관 디브리리는 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동시에 세계도서관사에 한 획을 그을 것임이 확실하다.

2009년 5월, 디브리리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때다. 